

종교사회와 기독교 지도자 교육

오 인 탁

(연세대학교)

I. 21세기의 전망

“다종교 사회와 종교지도자 교육”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테마이다. 종교는 인류의 역사와 기원을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문화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어왔다. 종교는 민족과 국가의 정체를 확인하는 중심이요 세계관을 지배하는 힘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간의 충돌의 역사로 세계사를 서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종교는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더 성장하여 왔다. ‘포스트모던’ 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조차도 종교는 쇠퇴하거나 합리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부흥하고 있으며 합리적 교리와 비합리적 신앙이 조화된 하나를 이루어 엄청난 힘으로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더구나 과학과 종교를 비롯하여 경제, 기술, 예술, 교육 등, 거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국가의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세계화의 시대에 종교는 현대인의 생활 형식과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더불어 대단히 강력한 현대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화기로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다종교 사회로 변모되어 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유래를 보기 힘들 정도로 여러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힘있게 성장하는 나라로 확인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종교간의 분쟁이 오래된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전쟁의 양상으로 끊임없이 전개되어왔다. 지금도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는 시민들이

천주교와 기독교로 나누어져 30년이 넘는 해묵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상과 파괴를 계속하고 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분쟁은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유대권과 아랍권이라는 민족과 문화의 역사를 통하여 다져진 구조적 비평화의 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선진국들이 그렇게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는 좀처럼 오지 않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중심으로 그리스 정교회와 이슬람교라는 두 종교간의 전쟁이 90년대 초에 유래를 찾기 힘든 잔혹성에 의하여 동반되어져서 거대규모로 치러지더니 이제 전장을 코소보로 옮겨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와 러시아를 등에 업은 세르비아 간의 전쟁으로 격상되어 치러지고 있다. 그리고 30년 동안에 치러진 17세기의 종교전쟁이 끝난 후에 코메니우스가 “평화의 천사”¹⁾라는 긴 글을 통하여 서로 적대적인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매년마다 일정한 시기에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상호간의 오해와 갈등을 말로 풀어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주장을 한 이래로, 칸트의 “영구평화론”(I. Kant, 1971: 191-252)같은 글에서 현재의 UN에 이르기 까지 인류는 온갖 지혜를 모우고 있건만 종교간의 평화는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서로 적대적인 종교들이 어깨를 맞대고 공존하고 있으면서 대화와 협력의 마당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비록 작고 쉬운 일은 잘하지 못하나, 크고 어려운 일은 잘하는 민족이 우리들이다. 어떤 분은 한국인이 비빔밥 체질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어찌되었던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 종교지도자 양성의 제도와 형식이 현대적 교육의 개념과 학제의 구조로 이미 재구성되었으며 또 새롭게 조직되어가고 있는 때에 이러한 주제로 함께 생각을 주고 받는 마당을 갖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21세기를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의 양면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세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미래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오인탁,

1) Jan Amos Comenius, Der Engel des Friedens an die englischen und niederländischen Friedensgesandten nach Breda gesandt, welcher von da an alle Christen Europas und hierauf an alle Völker des ganzen Erdkreises zu senden ist, auf dass sie einhalten, aufhören Krieg zu führen und Christus, dem Fürsten des Friedens, welcher den Völkern schon den Frieden verkündigen will, Platz machen. 1667. 복사한 원본의 긴 제목을 그대로 옮김. 글의 제목을 ‘평화의 천사’로 줄였음.

1997: 9-39) 1. 현재의 지배적 경제 조직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어서 우리들의 일상 생활을 심각하게 지배할 것이다. 2. 세계의 화폐 질서가 붕괴될 것이다. 3. 환경의 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세계 도처에서 환경 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4. 석유 자원의 고갈이 중동에서 진행되어 이로 인한 불안이 폭발 직전에 이를 것이다.

이미 1968년에 노벨상 수상자들로 구성된 ‘로마 클럽’이 보고하였던 바와 같이, 2000년대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지구 전체를 뒤덮을 것이며, 모든 정치 의식을 지배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일은 정치계와 경제계를 비롯하여 종교와 예술과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짐은 이미 보이고 있다. 로마 클럽은 ‘인류의 딜레마’²⁾라는 말로 이를 표현하였으며, 소위 ‘쓰레기 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서구에서는 미술과 조각의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교육학의 영역에서도 환경 교육, 생태 교육, 평화 교육 같은 새로운 연구 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다소간에 차이는 있으나 ‘우주선 지구호’의 폐쇄적인 조직과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종교지도자 교육도 그 큰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오늘날 미래는 형성가능한 세계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과 기업인들과 정치가들은 현재 보이는 미래의 예측가능한 변화의 조건들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생활공간을 개발하는 꿈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낙관적 전망을 할 수 있다(오인택, 1997: 10).

1. 기술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기술공학의 거대함과 투시불가능함 앞에서 인류는 불안해 했다. 기술공학의 발전의 속도를 인류의 학습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이 간격의 크기가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주는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 통신의 기술 공학은 마치 옛날의 노비처럼 이 모든 것을 통제 가능하고 투시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소위 ‘강철-칼라-노동자’로부터 ‘사이버-화이트-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공학의 인력에 온갖 일을 맡기고, 자신은 온갖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육체와 정신의 여가를,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면 “형태와 빛깔을”(Platon, 오인택, 1994: 185)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 Club of Rome Bericht für die 80. Jahre: Das menschliche Dilemma. Zukunft und Lernen. Hrsg. von Aurelio Peccei. Wien 1979.

2. 우리 앞에 새로운 작업 환경이 열려지고 있다. 경제와 산업의 세계에서 국경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다. 다국적 기업을 적대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시대는 지났다. 다차원적이고 전지구적인 기업 경영의 시대로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다. 산업은 단지 생산과 서비스의 영역일 뿐이 아니라, 사회화의 통로이며 생활과 활동의 공간이 되었다. 산업 자체가 이제는 교수와 학습의 시설이 되었다. 산업은 이제 생활 환경이며 교육 환경이다. 그리하여 생산의 요구와 자아 책임과 자아 실현의 소망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3.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에 대한 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생태계의 복원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평균 수명이 90세 이상으로 연장될 것이다.

4.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체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치에서는 민족 국가의 개념이 가져다 주는 여러가지 결점과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국제적으로 환경, 평화, 공존, 교류, 공유의 정치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과 경제의 질서, 해양의 개발, 화폐의 통용, 우주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지구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치가 펼쳐질 것이다. 종래의 중앙 집중적 기업 형태에서 다중심적이고 분산적인 기업 형태가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전 세계가 하나의 정보망으로 연결될 것이다. 획일적인 작업 시간의 개념과 형태가 지양될 것이다. 경쟁과 협력은 더 이상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유통의 구조는 사라지고 생산과 소비가 직결되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유통의 구조가 들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화할 것이다. 은행은 이미 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고 전산으로 처리하며, 화폐 유통의 전산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국 은행보다 지역 은행이 더 의미있게 될 것이다.

5. 도시는 거대한 건축 공사장으로 화할 것이다. 기존의 건물들이 생명 공학적 인공지능건물과 생태학적 자연친화건물로 연이어서 개조될 것이다. 교통 수단도 개혁될 것이다.

6. 여성의 해방과 더불어 우측 뇌의 해방이 일어날 것이다. 우뇌의 폭사는 이제 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과거의 역사가 되고 있다. 감정과 비합리성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지능지수(IQ)는 감성지수(EQ)에 의하여 보완되거나 대체되고 있다. 전체적이고 감성적이며 그림이 있는 조직과 모형을 오리엔테이션의 모델

로 삼는 사고의 유형이 우리의 사고 구조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고는 점점 더 유용한 사고로 확산될 것이다. 그리하여 도덕과 윤리에도 새로운 개념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미래의 생활 환경을 예측하고 교육 상황을 전망하는 것은 언제나 위기 의식에 의하여 동반된다. 위기는 있다. 그러나 위기가 없이는 기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적 세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한번 현재의 세계를 1000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간주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비교해 보자. 현재의 세계에는 천명중에 700명이 피부색이 검거나 누렇거나 절반 붉거나 하며, 나머지 300명은 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모든 수입의 절반은 60명의 손안에 있다. 그 중에서 55명은 백인이다. 800명은 문맹이고 600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 그들중 절대다수가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그들은 모두 정상적인 거주 공간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세계는 3000명으로 불어난 인구를 가질 것이다. 그중에서 백인은 6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문맹과 굶주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과 학교가 엄청난 수준으로 건축될 것이며 식량의 생산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구는 모든 면에서 성장과 발전의 필연성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유한 자가 더욱 부유해질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회가 전지구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지구의 한 작은 구석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동시에 지구 전체를 뜨겁게 달구는 사건이 될 것이다. 정보의 세계에서 은폐와 소외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예측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우리에게 불확실하게 열려져 있다. 세계는 오늘날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구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언제나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제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래의 세계를 그리고 말하는 일은 이미 모험을 전제하고 있으며, 모험 속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가 2000년대에는 경제적이고 생태적인 생활 환경이 대단히 달라진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때에는 달라진 교육의 환경에 따라서 학교의 구조도 교수 학습의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그 때에는 아마도 사물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가치 체계와 방법 자체가 달라질지도 모른

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간관과 국가관도 달라져서, 세계는 여전히 민족과 국가를 가르는 국경과 서로 상이한 언어와 문화로 있으나, 그러한 것들이 가름대의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변화될 것이다.

위에서 간단히 진단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종합하면 우리의 앞날은 결코 아름다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21세기는 고도로 발전한 기술사회, 공해사회, 경쟁사회,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찬 사회, 비인간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성이 고갈되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와 신학대학에서 영성훈련으로 무장한 교역자들에 의하여 인간의 피폐해진 심령을 돌보고 영성을 회복시켜주며, 구원의 체험과 확신을 갖게하는 일이 인류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영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Vision),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에서 찾아야 한다(이수영, 1992: 98). 이렇게 영성훈련과 경건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에, 신학생의 영성적 자질과 사회와 대학의 영성교육적 조건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이 간격을 극복하는 문제가 신학교육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신학교육의 문제는 지식의 전달과 기술의 숙달이 아니라, 영성의 훈련이다.

2. 멀티미디어의 교육 환경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엄청난 발전과 더불어 교육 환경에 혁명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 분야가 정보화 기술이다. 이 분야를 우리는 영어로 발음나는 대로 표기하여 '멀티미디어'라고 부르거나 이를 직역하여 '다중매체'라고 부른다. 이 새로운 기술 문명의 세계가 주로 지금까지 정보를 주고 받던 구조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꾸어놓고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의 시대를 흔히들 정보화 시대, 또는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라고 부른다. 명칭이 어찌되었던 간에 이미 시작된, 그리고 앞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불어닥칠 이 포스트모던한 세계는 우리의 일상 생활을 이미 심각하게 흔들어 놓고 있으며, 어린이의 성장 발달의 환경을,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주

로 경험하게 될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는 학교와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육 환경을 바꾸어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과 형식도 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는 인터넷과 사이버의 세계가 더욱 더 정밀화되고 확산되면서 인간의 사고구조와 생활방식까지 바꾸어놓고 있다. 그리하여 가상경제권(假想經濟圈), 가상교육권, 가상종교권이 급속하게 비대해지고 있다. 이미 사이버 대학과 시장과 교회가 활동하고 있다. 가까운 시기에 분명히 사이버 교회들의 연합체인 사이버 노회가 결성될 것이며, 사이버 주일학교가 선보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를 전지구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정보화의 현상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 개개인의 자아 정체감, 가정의 고유한 가풍과 문화, 지역 사회의 독특한 가치 체계와 행동 양식과 미풍 양속,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고유성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세계 개방적으로 살면서 나의 주체성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의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고 보존하고, 세계의 도처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온갖 정보들을 수용하고 소화하여 나의 고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도전받고 있다. 그리하여 개방적 공존의 능력을 갖춘 주체적 개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는 교회에도 심각한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정신을 교단과 교파의 관계에서, 국가 안에서, 그리고 세계의 무대에서 의식적으로 심화하였었는데, 이제는 에큐메니칼 정신 자체가 교육의 분위기가 되어서 이 정신으로 교회와 신학대학이, 학생과 선생이,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그대로 신학교육이 안고 있는 내적인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지금까지 교육하였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있다. 교육은 대학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래는 우리에게 이 틀을 초월하라고 한다. 이 틀 안에서만 교육하기를 고집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도전해오는 교육의 새로운 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세계를, 그것은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일이요 확대하고 심화하는 일인데, 교육 안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틀을 초월하여야 한다. 틀을 초월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용하여 왔던 신학교육의 개념과 형식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폐쇄적

교육 체제를 개방적으로 바꾸고,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교육 방법을 수평적, 쌍방적, 내지는 다방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공간도 막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모이는 공간에서 흩어지는 공간으로 그리고 이 모두를 열어놓는 개념으로 발상을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는 교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 중심에서 교회와 교우 중심으로, 교육의 개념을 공동체 교육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교수는 더 이상 전달하는 자가 아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그들의 생활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자극하는 자요, 한없이 큰 도전의 세계로 안내하는 자이며, 낙담과 좌절이 있는 곳에서 격려하고 지원하는 자이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함께 경험을 나누고 지식을 생산하며 경전을 훈련하는 곳이다. 교실은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상호 교호적인 교수 학습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멀티미디어의 환경은 전통적인 환경과 달라서 인간에 의하여 재구성된 환경이다.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과 교육의 환경으로 주신 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그 안으로 조화롭게 짜여져 들어갈 때에, 이 환경은 교육의 환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멀티미디어의 등장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교육은, 특히 지식의 단순한 전달이나 기술의 단순한 연마가 아니라, 신앙을 매개하고 지혜를 갖게 하며 참회와 중생의 종교적 체험 안으로 인도해 들이는 종교 교육은 용이해졌다기 보다는 더욱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티미디어의 교육 환경을 영유아들과 아동과 소년들에게는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청년과 성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극적 사용이라고 해서 그것이 교수의 역할을 대체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선 안된다. 미래의 세계는 우리를 더욱 더 심하게 멀티미디어 안으로 집어넣을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경험적으로 직접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식과 리듬을 개발하고, 이 형식과 리듬 안에서 멀티미디어가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멀티미디어가 교사와 학생의 농도 짙은 만남을 보조하고 철저화하는 환경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Ⅲ. 한국 신학교육 역사

1. 신학교의 설립과 발전

교회의 목사를 양성하는 기독교 신학교는 한국에서 20세기초에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1901년에 평양신학교(현재의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설립한 것을 효시로 하여, 대한 예수교 감리회가 1905년에 협성신학교(현재의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조선 성결교회가 1911년에 서울신학교(현재의 서울신학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렇게하여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라는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 교단의 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초기에 설립된 신학교들은 한국교회의 토착 교역자를 양성하되, 목사와 교인 간의 지적 수준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서 토착교역자의 지적 수준을 낮게 정하고 교육하였다. 그래서 초기에는 1년에 3개월씩 교육하여 5년만에 전 신학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강근환, 1993, 3: 11). 그러다가 1920년부터 1년을 봄학기 와 가을 학기로 나누어 3년간 교육하는 3개년 6학기제를 채택하였다. 이 때의 교육과정은 47개 과정으로, 성서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인문과학 등을 망라하고 있었다. 인문과학에는 음악, 문학, 세계 종교, 사회학, 심리학, 중국어 등이 포함되었다. 신학교육의 색깔은 교단에 따라 달랐다. 장로교회는 엄격한 보수주의와 근본주의 신학을, 감리교회는 신정통주의 신학을 가르쳤다.

한국의 신학교는 일제 하에서 1936년 신사참배문제를 시작으로 1945년 세계 제2차대전이 종결될 때 까지, 엄청난 박해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학교는 폐쇄되고 선교사들은 강제로 귀국조치되었다. 강제적 신사참배 앞에서 평양신학교는 문을 스스로 닫았으며, 협성신학교는 일제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교육을 계속하였고, 서울신학교는 강제로 폐교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보수주의적 신학교육의 약화와 진보주의적 신학교육의 강화를 가져왔다.

1948년에 한국 임시정부는 장로교회가 자진 폐교했던 평양신학교를 조선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재건하자, 이를 학위수여권을 가진 대학으로 인가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최초의 신학대학이 되었다. 해방후인 1946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장로교의

강력한 보수주의 집단이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따로 세웠다. 감리교신학교와 서울신학교도 1946년에 재건되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1946년에 신학대학을 세웠다. 이렇게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는바와 같은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교육기관들이 설립되었다. 조선신학교는 1954년에 장로교회가 예수교장로회와 기독교장로회로 분열되면서 기독교장로회의 신학교육기관이 되었으며, 현재의 한신대학교로 발전하였다. 고려신학교는 고신대학교로 발전하였다. 예수교장로회는 60년을 전후하여 공산권 국가의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는 집단과 이를 용공이라하여 인정하지 않는 집단 간의 내분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로 교단이 분열되었다. 그리하여 보다 더 진보적인 집단은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칭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로 남고, 보다 더 보수적인 집단은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칭하고 사당동에 총회신학대학교를 새로 설립하였다. 이 대학이 현재의 총신대학교이다. 그 외에도 이화여대의 기독교학과처럼 일반 대학에서 신학을 넓게 가르치는 학과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한국의 신학대학 설립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교회는 급속한 성장과 분열로 이름높다. 교파의 분열은 결과적으로 신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신설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1981년에는 마침내 문교부가 단속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문교부는 전국에 난립하고 있던 117개 무인가 신학교 중에서 110개교를 폐교조치하고 7개교를 인가조치하였다.

2. 학제

현재 신학교육의 학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교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학의 학부과정 4년 + 신학대학원 3년 + 2년에서 4년에 이르는 실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과정에서 연대, 계명대, 이대와 각 교단들이 경영하는 신학대학교의 신학과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학에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신학교육의 전문대학원인 3년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신학대학원을 이수하면 목회학 석사(M. Div.) 학위를 받고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졸업한 후에는 강도사 또는 전도사라는 직책으로 목회현장에서 실습과

정을 거치며, 노회의 인정과 결정에 따라 목사안수를 받는다.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계속하여 목회학 박사학위과정을 밟고 목회학 박사(D. Min.) 학위를 받거나, 일반대학원에서 신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신학석사(Th. M.)와 신학박사(Th. D.) 학위를 받고 신학자가 되는 길을 걸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개관하면, 신학교육의 중심은 3년간의 목회학 석사과정이다. 현재 한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교파들인 예수교장로회 통합측과 합동측과 고신측, 기독교장로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성공회 등이 모두 일반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을 교회의 추천, 성경종합시험, 외국어 시험을 골격으로 한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인 후에 신학대학원에서 M. Div. 과정을 밟게 하고, 그 후에 목사고시를 치르고 2년 내지 4년의 목회실습기간을 거쳐 목사 안수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9년(4+3+2)이 소요된다.

신학교육은 전체적으로 학부 과정 4년과 신학대학원 과정 3년 후에 목회중심의 실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있는 목회학 박사 학위과정과 신학중심의 이론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있는 신학 박사 학위과정으로 양분되어 있다. 신학 석사 학위과정은 학부에서 신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과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함께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학대학원을 거친 후에 대학원 신학과로 진학하는 추세이다. 왜냐 하면 신학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선 신학석사과정의 이수가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신학교육의 학제를 통하여 우리는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이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이나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과 구조적으로 대단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교사, 의사, 목사는 모두 전문직으로 대학에서의 기초교육과정, 최초의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받는 계속교육과정, 그리고 직무수행의 연륜을 어느 정도 쌓은 후에 받는 연수교육과정의 세단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의 단계는 의학의 경우에 예과와 본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고, 신학의 경우에 60년대 말까지 예과와 본과로 교육과정이 나누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현재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 또는 대학원중심 대학제로의 구조조정에서 신학을 비롯하여 의학, 법학, 경영학, 행정학 등을 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신학교육의 경우에 이러한 구

조는 오늘날 신학대학에서 받는 학부와 신학대학원 교육과정, 교회에서 강도사로 목회실습을 하면서 받는 계속교육과정,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교단이 정한 바에 따라서 받는 연수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의 교육과정은 이론중심으로 신학교육의 기초과정이다. 2단계의 교육과정은 실천으로부터 이론을 다시 학습하는 교육으로 신학교육의 심화과정이다. 3단계의 교육과정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 교회에서, 장로회 통합측의 예를 들면, 십년 이상의 목회를 한 후에 오는 영성과 지성의 허약성을 보충하기 위한 교육으로 신학교육의 계속교육과정이다. 신학교육은 1단계의 기초와 2단계의 심화로 기본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다. 신학교육의 3단계 교육은 주로 교단의 총회가 주관하며 ‘목사계속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기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IV. 신학교육의 두 중심: 학문과 경건

전통적으로 신학대학은 이중의 교육적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여왔다. 신학대학은 한편으로 종교기관인 교회의 감독과 지원 아래서 목사와 전도사 같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치기관인 교육부의 행정과 감독 아래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두 기능은 그러나 그 성격에 있어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긴장의 관계에 있다. 신학대학은 대학이므로 신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교수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신학대학은 또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므로 경건(敬虔)을 바탕으로 교회의 전통과 사회의 현실 사이에서 인간 개개인의 생활을 종교적으로 잘 인도하는 유능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문과 경건은 그러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따라서 상이하게 강조되고 각인되어 왔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목회자 양성기관이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대학인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그래서 ‘학문과 경건’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다.

학문과 경건 사이에 서있는 신학교육의 문제는 근대 이후에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팔리와 구스타프슨이 있다(E. Farley, 1983; J. G. Gustafson, 1981). 팔리와 구스타프슨은 이구동성으로 현대의 신학교육이 기술공학적(technological)으로 치우치고 있으며 교회가 실용적(utilitarian)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학문성과 전문성, 비판정신과 효율성, 객관적 진리탐구와 영성적 경건훈련의 보완적 균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오늘날 사실상 교회는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여 특히 멀티미디어 방면의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목회에 도입하고 있다. 그리하여 목회와 교역을 위한 기술과 방법을 기독교지도자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게 되었다. 이를 이기춘은 신학교육이 “교역자 중심의 패러다임(Clerical Paradigm)이란 협케로 들어서고 말았다”(이기춘, 1995, 11: 13)라고 표현하였다.

신학교육은 매개를 통하여 그 성격이 결정되는 교육체계요 교육조직이다. 신학교육은 교회와 사회, 학문과 직업, 신학과 종교, 연구와 목회를 교수학습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매개하고 있다(W. Herrmann, 1976:115). 그래서 신학교육의 중심문제는 다음과 같은 갈등의 물음으로 제시된다: 전문직으로서의 목사를 양성할 것인가, 아니면 학자로서의 목사를, 아니면 이 둘의 조화를 모색할 것인가? 조화로운 양성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의 전통과 색깔에 따라서 신학대학은 학문과 경건의 두 중심 가운데서 어떤 쪽으로든지 기울어지는 교육을 하여왔다. 전문직으로서의 목사를 배양한다고 할 때에, 신학교육은 성직자의 양성과 훈련의 도장으로 확인된다.

전문가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1. 전문가는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2. 전문가는 특정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전문적인 수준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3. 전문가는 전문영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기관에 속하여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4. 전문가는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고 일에 임하는 사람으로 이에 따른 높은 윤리적 규범과 자질을 겸비한 사람이다. 5. 전문가는 사회의 지도자이며 자신의 전문적 직무 수행의 대상과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에 전문가로 인정받는 직종으로 대표적인 직종은 의사,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 목사이다. 그들은 모두 의학, 법학, 교육학, 신학이라는 전문 지식의 세계를 갖고 있으며, 의술, 법률, 교육, 교역이라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고, 국가와 교회로부터 전문인으로서

의 자격을 인정받고, 병원, 법원, 학교, 교회라는 조직과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직 수행의 대상으로 의사는 인간의 건강을 돌보고, 법조인은 사회의 정의를 보수하며, 교사는 다양한 삶의 시기에 있는 인간을 교육한다. 이러한 봉사의 대상은 모두 전문직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제한된 대상들이다. 그러나 목사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전문직 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사를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의 삶을 종교적으로 돌보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간결하게 줄이면,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일의 범위는 그러나 전문적 삶의 현상과 영역으로 일정하게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는 다른 전문직업인들과는 달리 대단히 넓고 다양한 활동과 봉사의 지평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목사직은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일정한 전문성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탄생과 성장, 결혼과 자녀양육, 질병과 죽음, 일과 놀이 등, 인생의 모든 지평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다. 따라서 목사는 전문직임엔 틀림없으나, 다른 전문가들처럼 전문직의 대상을 일정하게 갖고 있지 아니한, 의사, 법조인, 교사가 하는 일의 기능을 모두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목사를 배양하는 교육은 없다. 다만 목사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후에, 스스로 교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고유한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V. 대학의 정신

여기서 우리는 대학의 정신으로부터 신학교육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ologna대학이 1088년에 설립된 후에 대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연구와 교수의 절대적 기관으로 군림하여 왔다. 대학은 고삐가 없는,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연구와 교수의 형식을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학문적 관심이 한 동기가 되고,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공동 생활, 공동 작업, 공동 연구의 새로운 형식을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회적 관심이 또 하나의 동

기가 되어서 탄생하였다. 대학은 처음부터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에 의하여 탄생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정신으로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좀더 멀리 보고 좀더 새롭게 본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대학 자체의 고유한 능력이요 성취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들 위에 서있다. 대학은 교회와 사회 안에 서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대학은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난쟁이다. 대학은 거인 보다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학이 보다 날카로운 눈이나 보다 우람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인의 크기가 대학을 들어 올려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중세기에 모든 인간이 일정한 신분계층에 속해있었을 때에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중세적 봉건사회의 계층구조로부터 한발짝 옆으로 비껴나서 그들 나름대로 또 하나의 새로운 사회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대학은 사회적 출신과 신분을 묻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였으며, 학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여 교수를 채용하고 총장을 선출하였다. 대학은 교수의 신분이나 국적을 문제삼지 않았다. 1158년에 Friedrich Babarossa 황제는 교수와 학생을 “학문에 대한 열정 때문에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라고 묘사하였다. 바바로사의 눈에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두 좋은 일에 종사하는 자들로 보였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팔목할 만한 특권을 부여하였다. 학문을 위하여 귀양살이를 하는 자들은 그들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 충분한 자유의 공간을 [libertas academica] 보장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하여 대학이라는 정신적 공화국은 외부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고한 안정의 기반위에서, 학문의 협동적 동료 조합(universitates)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교수와 학생의 공동체(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국가의 시민으로 있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고유한 법적 위치와 특권을 만들어 내었다. 1732년에 나온 「모든 학문과 예술의 대 백과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의 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조합(collegium) 또는 연합(corpus)을 의미하며, 그들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공화국을 만들어냈고, 고유한 법과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의 최고 권위 외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았다. 대학은 이미 처음부터 교회와 국가로부터 총학장 선출권, 이사 구성

권, 전체회의 소집권 등 자치의 특권과 학위 심사 수여권, 정관과 내규의 규정권, 및 사법권 같은 특별한 권리를 교황과 황제로부터 부여받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면세 특권과 국방의 의무 면제권, 그리고 임대료 동결권 같은 권리도 갖고 있었다. 대학은 스콜라 학의 사회적 구념이었다.

이러한 대학의 역사는 대학이 연구하고 교수하며 학문에 담겨 있는 정신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기를 포기할 때에, 대학은 이미 변질되고 말며, 따라서 학문은 대학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학들은 이러한 중세기의 대학들과 어떤 의미에서 구조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의 대학들은 서구의 근대적 대학이 한국에 들어온 후에 한세기의 역사를 지나 이제 제2의 세기로 접어든 이제 비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대학의 고유한 권위를 인정받고 대학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들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에 눈 뜨고 있다. 여기에 신학을 연구하고 종교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VI. 신학교육의 커리큘럼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학교육도 고등교육의 일반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양과정에 대한 서술은 필요없다고 보고, 여기서 학부의 신학과 기독교교육학의 학사과정 커리큘럼과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석사과정 커리큘럼만 범례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기독교교육학과는 신학과와 더불어 한국의 모든 교단이 학부에서의 신학교육의 두 기본학과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신학대학교가 예외없이 갖추고 있는 학과이다. 그래서 신학과와 함께 기본 교육과정을 소개하려고 한다.

1. 학부 신학사 과정

신학사 학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모든 신학교육의 기본과정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교육의 교양과 전공과 선택의 기본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학교에 따른 교양교육과정의 차이와 특징은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다. 여기선 신학전공 교육과정만 다루되,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범례로 삼으려고 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학년: 구약성서 I, II(전필). 2학년: 신약성서 I, II(전필), 구약학 개관(전필), 찬송가학, 종교미술, 성서지리, 이스라엘 역사. 3학년: 헬라어(전필), 조직신학 개론(전필), 신약연구 개론(전필), 신학 원서 강독 (영어) I, II, (독어) I, II, (불어) I, II,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현대철학, 신약 원전강독. 4학년: 희브리어,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 기독교 윤리학, 종교학, 종교철학, 신학 원서강독 (독어/불어) I, II, 구약 원전강독. 3.4학년 공통선택과목: 청소년 설교론, 성서와 민중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신학전공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의 원전과 내용을 공부하는 전공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어있는 교육과정, 이를 철저히 공부하기 위하여 바쳐주는 고전어와 현대어 교육과정과 성서신학 개론들, 그리고 신학의 여러 부분과학들과 목회에 필요한 지식들로 구성된 선택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신학대학교의 교육과정도 장로회신학대학교와 그 기본적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교단과 신학대학교의 교리적 특징과 선교적 강조점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교과목들이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총신대학교는 영적 지도자 훈련(1학년 필수), 라틴어(2학년 필수), 초급헬라어(3학년 전필), 한국 종교와 기독교(전필), 초급 희브리어(4학년) 등의 과정을 두고 있다. 이 과정들은 장신대의 교육과정에는 없는 과정들으로써, 총신대가 학부에서 고전어에 대한 비중을 높게 제시하고 있으며, 보수교단의 신학교답게 영성훈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 외의 신학대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신대학교: 철학개론(1학년 전필), 기독교인간학(2학년), 개혁주의 성경관(2학년), 교회전산(2학년), 중세철학(3학년), 근세철학(3학년), 기독교철학(4학년). 고신대의 교육과정은 보수교단의 신학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흥미있게도 철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한신대학교: 독일어 I, II(1학년 교필), 한국 민중운동과 기독교 역사(2학년),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2학년), 역사적 예수(3학년), 문학의 신학(3학년),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3학년), 출애굽 신학과 민중(3학년), 종교 사회주의(3학년), 제3세계 기독교 역사(3

학년), 예언자들의 말과 역사신앙(4학년), 상황윤리(4학년), 정치신학과 선교(4학년), 평화사상과 기독교(4학년), 찬양탄식향년의 시문학(4학년), 교회와 국가(4학년), 기독교와 사회주의(4학년). 한신대의 교육과정은 진보적 교단의 신학교육기관에 걸맞는 다양하고 풍부한 예언자적, 사회참여적, 민중신학적 선택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감리교 역사와 장정(4학년 필수). 감신대는 선택과목을 학년의 구분이 없이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감리교 역사와 장정이라는 과목만이 감리교 교단의 성격을 말해주는 과목으로 4학년의 필수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택과목 중에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있다: 카톨릭시즘, 교부사상사, 신흥종파 연구, 해방신학, 다종교와 선교신학, 공산주의와 기독교, 특수사회선교, 사회문제와 종교, 현대목회와 영성훈련. 감신대의 교육과정에는 질서와 참여,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단의 신학이 다른 교단들에 비하여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2. 학부 기독교교육학 학사과정

기독교교육학은 한국의 모든 신학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학부에서의 신학교육의 기본교육과정이다. 목사고시의 자격이 학사 학위 취득 + 3년제 신학대학원 이수이기 때문에, 모든 신학대학교는 학부에 신학과와 기독교교육학과를 두고 있다. 이 두 학과 외에 대학에 따라서 교회음악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선교학과 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학과와 기독교교육학과는 교단의 종교지도자 양성기관인 신학대학교의 학부과정의 2대 기본전공학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교육학과의 교육과정을 개관할 필요가 있다.

법제적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초론, 현장론, 과정론의 기본구조 아래에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두고 있다. 1. 기초론: 기독교교육개론, 성장발달론, 기독교교육사상사, 교육목회, 종교심리학, 교육신학, 기독교교육세미나. 2. 현장론: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소년교육, 성인교육, 가정교육, 교회교육, 선교교육. 3. 과정론: 기독교교육방법, 기독교교육과정, 기독교교육실습, 기독교교육특수실습, 시청각교육, 성서교육방법, 인간관계훈련, 그룹다이나믹스, 예

배와 교육.

이상과 같은 기독교교육학 전공의 기본교육과정은 다른 신학교육기관에서도 대체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신학과에서와 같이 교단특수적 교과목의 설계를 볼 수 있다. 총신대학교를 비롯한 다른 신학대학들의 기독교교육학과 교육과정에서 각 대학의 특성을 나타내는 교과목들을 선별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총신대: 기독교교육철학, 기독교교육과 사회, 교수매체이론 및 제작, 카테키즘 교육, 성경교수법, 제자훈련 프로그램. 한신대: 기독교평화교육, 기독교민중교육, 사회철학적 교육학방법론. 뉴욕 유니온 신학교: 세계화 교육(Global education), 종교적 상상과 교수. 밴더빌트 신학교: 자아정체성과 신앙의 역동성, 기독교교육 안에서의 신학과 모델들, 기독교교육 안에서 교차문화(Cross Culture) 문제, 기독교교육과 문화적 다원주의, 지역교회교육에서의 행정 및 지도력, 종교적 순례에서 전환점들을 위한 교육. 장로교 교육대학원(PSCE): 노인목회, 다문화적 청소년목회, 임상목회교육, 노인과 간세대적 집단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놀이학습, 장애인을 위한 교회의 목회, 캠핑, 레크레이션.

3. 신학대학원 신학석사과정

신학대학원 교육과정은 신학교육의 기본과정이다. 대학에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은 신학대학원 입학자격이 있다. 그들은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이론과 실천을 3년 6학기에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신학교육기관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신학대학원은 “신학을 정심하게 연구”하고, “목회자로서의 인격형성”과 “교역의 전문직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장로회신학대학교 요람, 1998-1999: 192). 교육과정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과목은 다시 신학의 8개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다: 1) 구약학 - 구약학 개관, 구약석의 방법론, 구약신학(2)³⁾, 구약근동세계문학연구; 2) 신약학 - 신약연구개론, 신약석의 방법론, 신약신학(2); 3)

3) 괄호 안은 학점수를 말한다.

역사신학 - 교회사 개관, 종교개혁사상사, 한국교회사, 고대기독교사상사; 4) 조직신학 - 조직신학개론, 기독교론, 성령론, 교회와 종말, 개혁신학; 5) 기독교와 문화 - 기독교윤리학; 6) 실천신학 - 목회신학원론, 설교학개론, 설교의 실제(1), 목회실습⁴⁾, 기독교영성훈련; 7) 선교신학 - 선교신학; 8) 기독교교육 - 기독교교육. 학생들은 이상의 8개 영역에 걸쳐서 신학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성서가 쓰여진 고전어들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각각 4학점씩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학점을 별도로 제시한 과목들을 제외하곤 모든 과목은 3학점이다.

선택과목은 이상의 8개 영역 외에 교회음악과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모두 10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다시 학년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7개 내지 11개의 과목으로 짜여져 있다.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한다. 또한 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였을 경우에 부전공으로 인정을 받는다. '기독교교육' 영역의 선택과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학년 - 교육의 신학적 기초, 기독교 아동교육, 교회교육론, 교육목회, 교육방법론, 선교교육론, 성서의 교육학, 교육실습; 2학년 - 인간성장발달론, 기독교청소년교육, 기독교가정교육, 기독교교육교수방법, 기독교학교교육, 교회교육지도자론, 기독교교육행정, 예배와 교육; 3학년 - 교육의 사회문화적 기초, 기독교성인노인교육, 기독교사회교육, 성서교육방법의 이론과 실제, 기독교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기독교교육과 상담, 교육신학, 기독교여성교육사.

이상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합하여 10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은 성경종합시험에 합격한 후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신학석사(M. Div., Master of Divinity) 학위를 수여받으며, 목사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갖는다.

VII. 최고의 정신을 추구하는 대학

대학은 보편의 정신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대학은 최고의 정신을 추구하는

4) 목회실습은 매학기 마다 1학점씩 6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목회실습 4학점, 교회정치, 헌법 각 1학점씩으로 되어 있다.

곳이다. 대학은 일반적 관심에 부응하는 곳이 아니다. 대학은 특수한 관심에 부응하는 곳이다. 이를 universitas라는 대학의 이름이 잘 밝혀주고 있다. 중세기에 상인, 수공업자, 시민들의 협동적 보호 공동체를 칭하는 말인 universitas는 ‘보편’, ‘일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공동체’, ‘단체’, ‘조합’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universitas가 교수들과 학생들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대학이 대학이라는 조합의 회원을 제한함과 더불어 등장하였다. 1207년에 파리의 주교는 대학을 *communitas scholarium*으로 칭하였고, 1208년에 교황은 universitas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1221년에 파리 대학이 최초로 *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이라고 자칭하였다. 이러한 대학의 명칭에 담겨 있는 대학의 정신을 우리는 다시 발견해야 한다. 대학은 국가와 사회 안에 있으나 국가와 사회를 초월해 있다. 대학에서는 대학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최고의 정신을 추구하며 특수한 관심에 몰두하는 본질이 활발하게 약동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학위 명칭인 석사(Magister)나 박사(Doctor)는 대학의 역사에서 엄격한 교육과 심사의 과정을 거친 학생에게 주어져 왔으며, 어떤 대학에서든지 교수할 수 있는 권리를 [*licentia ubique docendi*] 의미하였다. 다시 말하면 학위는 일반적 교수 자격의 명칭이었다. 이는 1233년에 교황 Gregor IX세가 Toulouse 대학에 부여한 특권으로부터 유래한다. 교황이 내린 교서에 실려있는 특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서 어떤 Magister가 시험을 치르고 인정을 받았으면, 어떤 대학에서나 어디서나 그는 새로운 시험을 치르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 종교다원화 사회에서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들이 교육부의 감독과 통제 아래서 안주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교과와 종교 중심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어떤 “종교지도자 교육 협의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교육과 학위의 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과제이다.

대학은 자유의 집(*atrium libertatis*)이다. 전승되어 내려온 권위에 대립하여 연구와 교수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한 곳이 대학이다. 대학은 학문의 왕국이다. 대학은 그 가장 고상한 의미에 있어서 최고가 지배하여야 한다. 대학은 최고가 아닌 자들이 학문의 왕국에서 활보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소위 소유하기 위하

여 대학에서 서성대는 물질주의자들을, 이를 셸링은 “빵학문”(Brotwissenschaft)을 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대학에서 구축하여야 한다. 학생은 오직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학(研學)하여야 한다. 자아 실현을 꾀하는 인간만이 참된 인간이다. 이러한 연학의 능력이 없이 단지 똑똑하기만 한 자는 일종의 설치된 기계와 같다. 기계는 누구에 의해서나 설치, 조작, 조종된다(F. W. Schelling, 1802). 피히테에 의하면, 대학은 더 이상 이미 정리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가 아니다. 대학은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다. 교수는 어떤 대상에 관하여서도 그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생각한 바를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를 인식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대학은 있다(J. G. Fichte, 1811).

만약에 신학대학이 도처에서 그저 실용적인 목회경험만을 확보하게 하고 대학의 정신을 거부하거나 경시한다면, 그러한 신학대학은 공허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대학의 정신이 모든 교단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학교육의 관심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신학의 발전을 꾀하는 모든 생각들은 공허할 것이다. 만약에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신학대학이 긴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가꾸어온 대학의 정신을 폭넓게 공유하고 이 바탕 위에서 각자의 고독과 자유를 즐기지 않는다면, 신학대학의 기능 수행은 가련하고 비참해질 것이다.

VIII. 21세기 신학교육의 전망

지금까지 논의한 신학교육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21세기의 신학교육을 전망해볼 수 있다.

첫째로 21세기에 신학대학이 강조하여야 할 신학은 화해의 신학이다. 교회는 인간과 화해하고 자연과 화해하기 위하여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신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중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신학으로, 인본주의적 합리주의적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으로 새롭게 세우는 신학으로, 이 세상의 신학을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에로 환원하는 성격과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신학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중심의 축을 전환하는 신학이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생각은 근본적 착각이다. 하나님 없는 삶의 세계는 결국엔 인간까지 소외시키고 구축하여 버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인간도, 자아도, 인격도 아닌, 자본, 권력, 욕망, 본능 같은 제3의 비인간적 파괴성들뿐이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의 지배를 구가하였던 20세기를 보내면서 21세기가 인간의 세기, 인간성 회복의 세기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세기의 신학교육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화해’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21세기의 신학은 성경을 새롭게 읽는, 자연과의 화해의 신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배하는 신학에서 창조의 질서대로 보전하는 신학으로, 그리하여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고 공해와 착취를 분석하며, 동물과 식물 뿐만 아니라 토양과 광물의 생명을 염려하며 우주의 질서를 염려하는 신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 상호간의 화해의 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사랑의 부재를 회개하고, 나 자신의 죄책을 고백하며, 이웃을 용서하는 신학, 동정(Compassion)과 책임의 신학, 연대와 참여의 신학, 평화와 통일의 신학, 공유와 공용의 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화해의 신학의 관점에서부터 우리는 신학대학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수 있다. 신학대학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정경화된 교육과정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신학교육의 중심내용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보완을 통하여 반성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환경과 생태학, 종교다원론, 종교간의 대화, 제3세계신학, 에큐메니칼 신학, 사이비 종교 연구, 북한학, 생명의료윤리, 기독교와 정치, 기독교와 경제, 직업윤리, 아세아 문화, 테크놀로지, 문화인류학, 종족의 신학과 역사, 종족언어, 커뮤니케이션 이론, 컴퓨터와 신학, 생명신학 등.

둘째로 신학교육은 언어교육의 전통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여야 한다. 신학교육에서 언어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마틴 루터는 신학과 고전어를 중심으로한 인문학의 관계를 ‘언어라는 칼집에 들어있는 신학이라는 칼’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 같은 성경이 쓰여진 고전어뿐만 아니라, 영어, 독어, 불어 같은 현대의 신학을 주도하는 학자들과 대학들을 담고있는 현대어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신학교육 안에 통합되어 있는, 현대에 와서 그 비중이 축소되어진 교육과정이다. 또한 신학교육에서 중세시대의 교부신학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의 학습은 성경을 비롯하여 신학의 기본적인 텍스트들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신학에서 언어교육은 단지 성경과 고전을 이해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례와 예배의식과 종교적 상징과 형식의 인식에서부터 말씀이 선포의 통로(Kategorie)로 삼고 있는 인간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그래서 신학적 언어교육은 고대와 중세의 학문과 생활을 포괄하고 있다(W. Herrmann, 1976: 108). 바로 여기에 성서 그리스어 뿐만 아니라 플라톤을 함께 읽히며, 성서 라틴어 뿐만 아니라 키케로를 함께 읽히는 근거가 자리잡고 있다.

셋째로 신학교육은 경건훈련의 기초 위에 학문연구의 집을 세워나가야 한다. 불란서가 불란서 혁명 100주년과 만국박람회 개최를 함께 기념하는 기념비로 1889년에 파리에 에펠탑을 세우면서 20세기가 과학과 기술의 세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전망하였다. 그래서 에펠탑은 과학과 기술의 상징으로 우뚝 서있다. 그리고 20세기는 전망하였던대로 과학과 기술의 세기가 되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와 포스트모던 사회를 거쳐오면서 인간은 과학과 기술의 문명세계에 너무나 탐닉한 나머지 인간성을 파괴하고 상실하는 걸음을 걸어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는 너무나 과학화되고 비인간화되었다. 그 결과는 교육의 이론과 실천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신학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의 중심에 지식이 자리잡고 있게 되었다. 지혜는 변두리적 존재로 밀려났으며, 교육의 기본내용과 형식에서 배제되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은 전통적으로 경건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경건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자리잡고 있다. 경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에서 나오며, 들은 바대로 현존하는 삶에서 영글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Schma Israel. 신명기 6: 4)를 그렇게나 강조하였다. 그러나 종교가 교육이 되면서 들음의 삶은 봄의 삶으로 변모되어왔다. 그리하여 내가 사물을 보고 파악한 것이 바르게 본 것이고 사물을 그 본질에 있어서 꿰뚫어 본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하여 철학(Philosophia) 곧 과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신학과 교육은 그리스의 언어와 철학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2000년의 세월을 걸어오는 동안에 들음의 삶에서 봄의 삶으로, 경건과 지혜의 학에서 이론과 과학의 학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여왔다. 그 결과는 마치 ‘거울’처럼 투명하고 명징적이어서 이성의 힘이 빛나는 집을 세우긴 하였으나, 시간의 조류와 공간의 다양성을 넘어서서 흔들리지 않고 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반석 위에 버티고 앉아 술한 거짓 신들의 음성과 다양한 문화에 담겨있는 상이한 가치판단의 척도들을 투명하게 보고 밝히려는 자세를 상실한 때 마르고 딱딱한 교육의 집이었다. 이를 우리는 다시 ‘바위’처럼 들은바대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머물러 있는 교육의 집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안다’의 길이다. 이것이 영성의 기초 위에 감성과 이성의 힘을 쌓는 길이다. 인간 자체가 낯선 존재가 되어버린 시대에 경건훈련은 오늘날 신학교육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참고문헌〉

- 2000년대를 향한 신학과 교육(1992). 장신대 교수세미나 자료집.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 강근환(1993). 한국 신학교육의 변천과 오늘의 과제. 기독교사상, 411(1993, 3).
- 경건과 학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요람 1998-1999.
-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1997). 장신 비전 21세기. 1997-2006. 장로회신학대학교.
- 박근원(1993). 세계 교회 신학교육의 새 지평. 기독교사상, 411(1993, 3).
- 오인택(1994). 고대 그리스의 교육사상. 서울: 종로서적.
- 오인택(1997). 21세기 교회교육의 전망.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교육논총, 2.
- 이기춘(1995). 21세기를 대비한 신학대학의 교육제도. 기독교사상, 443(1995, 11).
- 이수영(1992). 21세기를 향한 장신대의 신학과 교육. 2000년대를 향한 신학과 교육. 장신대 교수세미나 자료집.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이재정(1995). 21세기 에큐메니칼 시대를 위한 신학교육. *기독교사상*, 443(1995, 11).
정일웅(1998). 대학 신학과와 교육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255(1998, 여름).

Farley, Edward(1983). *Theologia*. Philadelphia: Fortress 1983.

Gustafson, James G.(1981), *Ethics from a Theocentric Perspective: Theology and Ethics*. Vol.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rrmann, Wolfgang(1976). *Theologische Ausbildung und ihre Reform*. Comenius-Institut.

Jaspers, Karl/ Kurt Rossmann(1961), *Die Idee der Universität für die gegenwärtige Situation entworfen*. Berlin.

Rendtorff, Trutz/ Heinrich Reiss(Hrsg.)(1974), *Reform der theologischen Ausbildung. Empfehlungen zum Theologiestudium*. Stuttgart: Kreuz-Verlag 1974.

Kant Immanuel(1971). *Zum ewigen Frieden*. In: *Kant Werke*. hrsg. von Wilhelm Weischedel. Band 9, Darmstadt.

Club of Rome Bericht für die 80(1979). Jahre: Das menschliche Dilemma. *Zukunft und Lernen*. Hrsg. von Aurelio Peccei. Wien.

Platon, Politeia. ; 오인택(1994). 고대 그리스의 교육사상.

Farley Edward(1983). *Theologia*. Philadelphia: Fortress; Gustafson James G.(1981). *Ethics from a Theocentric Perspective: Theology and Ethics*. Vol.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chelling F. W.(1802). “학문적 연학의 방법에 관한 강의”.

FichteJ. G.(1811).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단 하나의 가능한 장애에 관하여”.